

지방자치단체 문화자본이 지역주민의 만족도와 지역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ommunity Cultural Capital on the Residents' Life Satisfaction
and Local Identity

기영화**
Kee, Youngwha

■ 목 차 ■

- I. 서론
- II. 이론적 논의
- III. 연구방법
- IV. 분석결과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자본이 커뮤니티웰빙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 커뮤니티웰빙의 다차원 모델 접근법에서 사용하는 문화자본 요인을 측정하였다.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면서 지역사회가 보유한 역사, 전통, 문화와 생활양식 및 주민들의 가치를 포함한 문화자본이 주민들의 생활만족도와 지역사회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커뮤니티웰빙 요인 가운데 지역사회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드러내는 문화적 자본은 결국 주민들의 지역정체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연구 데이터는 2015년 커뮤니티웰빙 전국조사 자료로 2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723명의 지역주민이 응답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문화자본은 자신의 지역사회의 소속감과 개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소득수준과 건강상태는 문화자본에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3A2924563)

** 송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교수(주저자)

논문 접수일: 2017. 11. 29, 심사기간: 2017. 11. 29~2017. 12. 20, 게재확정일: 2017. 12. 20

대한 시군구의 지방자치단체 수준에 따라 다른 영향 요인이 작용하였고,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웰빙은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다른 자본들, 사회자본이나 인적자본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화적 자본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 주제어: 커뮤니티웰빙, 문화자본, 지방정부, 지역소속감, 지역정체성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s cultural capital on the level of community well-being. To study this, we measured the factors of cultural capital used in the multidimensional model approach of community well-being. It is difficult to measure cultural capital because it is difficult to handle in public service of local government. However, as local governments have increased their interest in the quality of life of their inhabitants, cultural capital, including the history, traditions, culture, lifestyles and values of the residents of the community, has impacted on the residents. Cultural capital, which reveals the identity and uniqueness of the community among various community well-being factors, is a factor affecting the local identity of the residents and the sense of belonging to the community. The research problem is through the national survey in 2015. The results showed that cultural capital had an influence on the sense of belonging and personal life satisfaction of the local community. In addition, the income level and health status of the individual were influenced by the level of the local autonomous community in the city and municipal area, and the community well-being of the local residents showed a meaningful difference. Therefore, local governments should build public services for cultural capital in order to improve other communities' capital, social capital or human capital.

□ Keywords: community well-being, cultural capital, local government, local affiliation, local identity

I. 서론

문화에 대한 관심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되어왔다. 사회과학과 인문학에서 문화에 관한 연구는 미학적 접근부터 경제학적 접근에 이르기까지 문화는 인간 삶의 주요 자본의 하나로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과 커뮤니티웰빙을 연구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커뮤니티웰빙의 자본으로 다루는 다차원모델로 접근하였다. 지역사회는 일정 지리적 영역을 기반으로 자원과 각 자원이 변환된 자본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왔다. 커뮤니티웰빙의 다차원모델을 지역사회의 자원을 인적자본, 문화자본, 재정자본, 사회자본, 환경자본, 인프라자본으로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다.

문화가 지역사회연구에서 다루어진 것은 한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그 지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지역의 지리적 영역으로 한정하는 특정 지역의 경계 안에서 역사적 발전과정과 특성을 발견하고 있다. 일례로 한국에서 마을만들기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 과정에서 문화는 마을주민들을 한데 어우르게 하는 핵심요소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역의 문화와 역사 및 전통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주민들에게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지역의 전통과 문화로 접근되고 다양한 지방정부의 접근방식은 행사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러 연구들이 지역축제와 문화제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와 관련된 효과를 드러내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이를 지역의 문화자본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고 있다(김정이, 2011; 이명우, 2016; 서우석, 2015; 정보람, 2017). 이들의 연구는 지역축제가 지역의 문화행사로 일회적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성 행사로 그치는 부정적 측면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 지역사회가 공동체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공유할 핵심요인으로 지역성을 들고 있다. 지역성은 지역의 정체성으로 규명될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개조되고 유지되는 것이다(Kee & Nam, 2016). 성미산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의 정체성은 그 지역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것에서부터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향요인이 있다. 이런 요인들은 커뮤니티웰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감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기영화외, 2013).

지역사회와 문화적 자원과 문화자본이 논의되는 과정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발전과정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주민의 수준에서 의미있게 지역의 차원에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고유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는 지역사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정부를 지역의 단위로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방정부 차원의 접근은 가능한 객관적인 지표와 데이터 구성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동네라고 칭할 수 있는 근린지역사회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특히 지역사회 혹은 지역공동체의 개념과 관련한 문화에 대한 논의는 커뮤니티형성이라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서 논의되어온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문화자본이 지역사회주민들의 지역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지역축제와 지역문화행사들이 그 예로 분석된 선행연구들은 지역사회의 이벤트나 지방정부의 행사들이 지역공동체에 구축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지역거주 의향이나 지속거주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주민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사회의 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사례중심의 커뮤니티연구를 통해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Kim & Lee, 2013).

문화관광부와 행정안전부의 다양한 지역사회 관련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의 활동과 공동체형성을 위한 사업들이 지역자산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자본으로 접근한 것이다. 다양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정책과 사업들은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웰빙을 구현하는 요인들로 연구되고 있다. 커뮤니티웰빙의 다차원모델 가운데 경제자본과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은 많은 연구가 되었으나 문화자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사회의 문화활동을 지역사회의 문화자본으로 간주하고,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지역의 문화자본 수준이 개인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지역의 문화자본은 지역사회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상의 두 연구문제는 구체적으로 문화자본이 커뮤니티웰빙의 수준에 영향을 지역사회자본으로 의미 있는가를 함께 분석하였다.

셋째, 지역의 문화자본은 지역정체성과 지역주민의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개인의 사회경제적 요인과 거주지역의 크기는 지역만족도와 지역소속감 및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논의

1 문화자본의 정의 및 요인

문화자본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사회학자들은 문화자본을 사회적 계층의 이동성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사회적 자산으로 인간의 삶에서 개인의 교육, 지식, 외모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문화자본의 구성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www.wikipedia.org20170808;

Harper-Scott and Jim Samson, 2009). 이런 정의는 문화적 자본은 물질 뿐 아니라, 문화적 상징이나 언어, 가치체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체제 및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축적된 문화유산을 포함하고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부여하는 기능에 관심을 두고 있다(Harker, 1990:13)

문화자본에 대한 논의는 브로디외(1977)에 의해 교육이 사회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학문적으로 제시되었다. 자본이 경제적 재화의 개념으로 정의된 것을 문화적 자본의 제시로 비가시적인 것, 즉 습속이나 행동방식, 생활양식, 사고와 신념체제 등을 포함한 가치영역의 것을 자본으로 전환시킨 계기가 된 것이다. 브로디외의 시도는 문화자본의 논의를 학문 영역으로 전환시키게 되었다. 특히 1995년 그의 저서 "The Forms of Capital"에서 자본의 개념을 재화, 자산, 소유를 포함한 경제자본과, 네트워크나 관계를 포함한 사회자본으로 논의하였으며 사회관계나 신뢰 등이 주요 개념이 아니고 교육을 주요 구성요소로 간주하면서 문화자본에 대한 논의를 교육제도 속으로 확장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교육사회학분야에서 브로디외의 문화자본과 교육 및 사회계층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된 것이다. 특히 그의 문화자본에 대한 논의는 교육이 개인의 지식이나 인지적 기술을 포함해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고 문화자본의 세 가지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문화자본을 학문적 연구로 확대시키게 된 것이다(Bourdieu, 1990:114).

문화적 자본은 형체화된 자본(Embodied capital), 객체화된, 대상화된 자본(Objectified capital), 제도화된 자본(Institutionalized capital)으로 구분된다. 첫째, 형체화된 문화자본은 사회화를 통해 의식적 혹은 수동적으로 계승된 문화나 전통으로 계승된 것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개인의 사고방식이나 성격등 문화적 영향으로 쉽게 수용되는 것이다. 둘째, 객체화된 문화자본은 개인의 예술작품이나 과학도구 등 소유물로 경제적 이득을 위한 거래가 가능한 개인의 소유물로 문화적 자본의 가치를 촉진시키는 상징물이다. 객체화된 문화자본은 개인 소비가 가능하고 상징적으로 문화적 가치를 객체화시켜 문화자본을 소비하게 한다. 셋째, 제도화된 문화자본은 개인의 문화적 자본에 대한 기관의 형식적 인정으로 학위나 전문자격인정이다. 제도화된 문화자본은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양적 질적 역량을 측정하고 인정되는 점에서 경제자본과 함께 논의되기도 한다. 이들이 다루는 문화적 자본의 개념은 교육체제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이다. 브로디외의 이론에 기반한 학자들의 연구는 교육체제에서 학교안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가족문화 등이 주요 문화자본의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Emmison & Frow(1998)의 연구는 언어 뿐 아니라 정보화기술을 문화자본의 형태로 간주하고 정보기술과 컴퓨터의 사용이 브로조아 계층에 편향하는 객체화된 문화자본으로 지적했다. Crook(1997)은 브로디외의 이론에 기반하여 호주의 다문화주의와 인종주의를 연구하여 언어자본과 헤비투스의 정도가 인종연구를 하였다. Gatto(2003)는 그의 논문을 통해 학교는 어린이들을 이미 학업성적에 의해 꼬리표를 붙여 사회계층으로

전환되게함으로써 이미 어린 시절부터 문화적 자본에 의해 사회계급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DiMaggio(1982)는 문화자본의 연구를 고등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이미 음악, 미술, 문학수업의 참여가부가 달라지며, Peterson & Simkus(1992) 연구는 문화자본이 직업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문화자본에 대한 브로디외의 관점을 도입한 연구로, 문화자본에 대한 브로디외의 제한된 관점과 개념을 사용하고 학교교육제도에 국한된 연구로 가족의 영향이나 사회계층에 대한 불평등을 보여주는 편파적 개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는 제한적인 브로디외의 문화적 자본의 개념의 제한성을 벗어나 문화를 지역사회 자원과 자본으로 접근하는 커뮤니티웰빙의 다차원적 모델에서 제시하는 문화자본의 요소를 중심으로 연구 하였다. 이는 문화자본을 지역사회의 인적자본과 사회자본과의 구별하여 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전달체계에 확대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적 자본연구

문화자본에 대한 연구는 사회학과 문화인류학 및 예술철학 등의 관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실천적인 측면에서 문화적 자본의 연구는 측정될 수 있는 지표들의 범위내로 논의가 제한되었다. 문화자본의 연구는 논문검색 포털검색을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약 241편의 논문이 검색되었으며 사회자본, 문화소비, 옴니보어, 계급, 문화, 문화생산이 관련 개념으로 나타나고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문화자본연구 검색되지 않는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경제적 물질적 발전에 관심이 우선하여 진행되어 온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지방정부가 문화자본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최근의 일이라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지방행정분야에서 문화자본에 관한 연구는 쉽게 발견되지 않았다.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문화에 대한 연구는 문화예술진흥 보고서 및 공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몇 편의 논문에서 다루어졌으며, 최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축제행사에 대한 연구들을 볼 수 있다. 이들 선행연구는 브로디외의 문화에 대한 이론으로부터 문화를 사회계층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었으며, 지방정부의 지방자치단체를 기반으로 문화에 대한 가치와 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을 주요한 요인으로 다루는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지역사회의 역사와 전통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양식과 가치에 대한 연구가 다수였으나, 문화자본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게 사용되고 사회적 자본과의 구분이 명료하게 다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 커뮤니티웰빙의 다차원적 모델은 이런 한계를 벗어나 지역사회의 문화자원을 지역자본으로 바라보고 지방정부의 기능과 의무로서 문화자본을 공공서비스로 바라보고 있다(Kee, 2016).

커뮤니티웰빙 다차원모델은 지역사회의 자원으로서 지방정부의 문화자본에 대한 개입을 가정

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개입이라 함은 지방정부가 일차 자원을 활용하고 관리하여 새로운 자원으로 지역사회와 지역주민개인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형태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자본의 생성 혹은 관리는 지방정부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Kim & Lee, 2013). 커뮤니티웰빙 다차원모델은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을 구분하고 그 구성요소에 대해 구별하고 있어 문화자본에 대한 지방정부의 영향을 연구하는데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차원모델은 커뮤니티 웰빙을 구성하는 자본을 인적 자본, 사회자본, 물리적 자본, 자연적 자본, 재정자본의 범주로 구분하고 지속적인 지역주민 생활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환경과 생활구조를 연계하여 지역주민과 거주하는 환경적인 맥락과 자본을 구분해서 지표조사와 측정을 하고 있다(Lee et al, 2011). 문화자본이 실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에 의해 가지적으로 인식되고 실행되는 것을 조사하고 측정하도록 가정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에 의해 추진되어 왔던 마을만들기사업과 문화공동체구축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과 함께 이루어지는 마을축제와 사업들이 문화자본으로 연구될 수 있었던 것이다.

문화관광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문화예술활동을 매개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주민들의 자율적 문화 활동을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객체에서 문화를 생산하는 주체가 되고 지역사회의 문화자본을 생산할 수 있는 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김정이(2011)의 연구는 지역축제 등이 지역공동체구축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용관과 김혜인(2014)의 연구는 지역문화와 관광역량에 따른 지역축제의 집객효과를 분석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관광과 여가활동등이 지방정부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정부에 의한 지역문화예술사업은 여러 형태의 마을공동체 구축 및 지역주민들의 관계형성 등 지역사회에서 긍정적 효과를 드러내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서비스의 관점에서 적극 개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화가 지역만들기 혹은 주민들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문화를 매개로한 지역사회의 변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Kee et al, 2014; 254).

문화활동 및 문화예술활동에의 참여가 개인의 만족도 및 개인의 행복에 미치는 이명우(2016)의 연구는 국민여가활동이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여가시간의 정도에 따른 영향이 크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정보람등(2017)의 연구는 지역문화 환경이 개인의 만족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고 여가활동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개인의 행복감은 개인의 소득이나 경제적 여건보다 오히려 개인이 향유하는 여가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서우석(2015)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 바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자본은 지역주민의 지역생활에 깊게 관련되어 있음이 선행연구들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Ⅲ.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 자료는 2015년 커뮤니티웰빙 전국조사를 통해 연령과 성, 지방자치단체 수준을 기준으로 계층표집된 것이다. 표본 추출은 2015년 1월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 지역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한 것이며 총 2723명이 참여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도 수준에서 $\pm 1.9\%$ 에서 유의하다. 표집지역은 광역시도, 중소도시,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표집하여 전문리서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되었다. 자료 수집은 노인층과 비문해자들이 소외되거나 배제된 응답자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2년 이상의 방문조사 경력자들을 사전교육을 실시한 후 인쇄된 질문지를 읽어주고 응답을 받아 적는 구두질의방식으로 4주에 걸쳐 실시되었다.

표본의 특징은 남녀성비는 균형을 이루고 있고 20대 이상 50대까지는 비슷한 응답을 하였으나 60대 이상이 다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등학교졸업이자가 63%로 국가표준통계(2015년)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고 혼인상태는 기혼의 비중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었다. 소득과 경제활동형태는 구체적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주거형태에 있어 75.7%의 자가 주택으로 국가표준통계(2015년)의 55.3% 자가 주거형태(KOSIS 20170713)와 비교하여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연구지역이 지역사회의 크기에 따라 표본을 할당하는 계층표집으로 자가 주택비율이 높은 농촌지역이 동일하게 표집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연구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지역크기, 성별, 연령, 교육, 혼인형태, 소득, 경제활동형태, 거주형태를 포함하여 다음의 <표 1>과 같다.

< 표 1 >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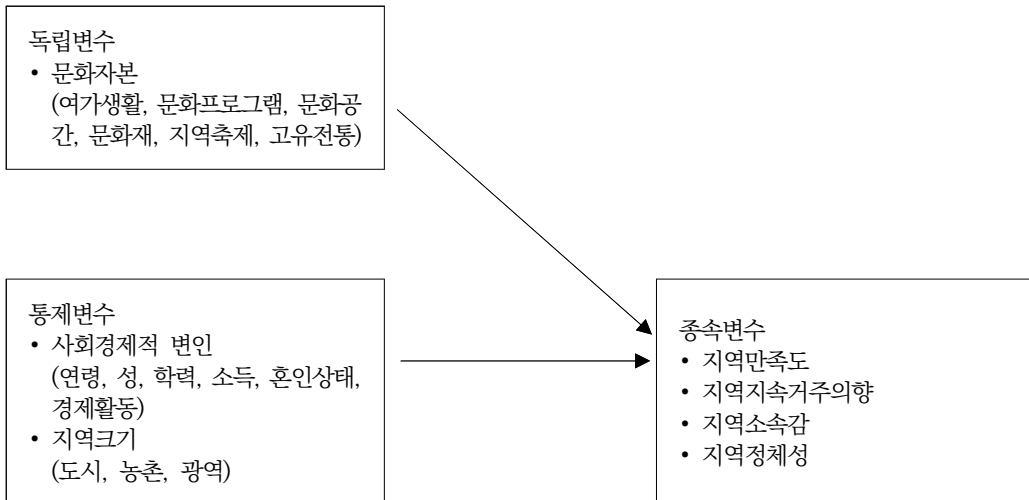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성별	남성	1,350	49.6
	여성	1,373	50.4
연령	20대	432	15.9
	30대	450	16.5
	40대	532	19.5
	50대	552	20.3
	60대 이상	757	27.8
학력	고등학교 이하	1,715	63.0
	대학교	980	36.0
	대학원 이상	28	1.0
거주형태	자가	2,061	75.7
	전월세	622	22.8
	기타	40	1.5
근로형태	임금근로자	915	33.6
	고용없는 자영업자	896	32.9
	고용있는 자영업자	158	5.8
	무급가족 봉사자	129	4.7
	무응답	7	0.3
	비근로자	617	22.7
소득	200만원 미만	767	28.2
	200-300만원미만	502	18.4
	300-400만원미만	526	19.3
	400만원-500만원미만	336	12.3
	500만원이상	586	21.5
	무응답	7	0.3
결혼상태	미혼	599	22.0
	혼인	1,896	69.6
	기타	228	8.4
지역크기	광역시	1102	40.6
	도 및 중도시	523	19.3
	농촌지역	1087	40.0

2.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

본 연구조사에서 문화자본 측정은 지역문화재, 지역문화자산, 여가생활, 문화프로그램, 지역축제, 고유전통의 6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각 질문에 대한 리커트 10단계 척도를 사용한 것이다. 지역주민의 계속거주의향과 지역소속감 및 지역정체성은 자신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10단계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방형질문으로 그 이유를 기술하도록 하였다.

분석모형은 다음의 <그림 1>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변수가 구성되었으며 인구통계변인에 의한 개인생활만족도와 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문화자본이 지역주민의 개인만족도와 지역에 대한 지속거주의향 및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수의 구성 및 측정항목은 커뮤니티웰빙 구성 영역중 문화자본의 요인의 측정 지표로 문화자본의 구성지표들이 지역주민들의 지속거주의향, 개인차원의 생활만족도와 지역만족도 및 지역정체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크기가 지역의 정체성이나 지속거주 의향과 지역만족도와 개인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와 개인의 사회경제적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가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림 1> 분석모형



IV. 분석결과

1. 문화자본과 지역만족도

지역사회의 문화자본이 개인의 생활과 지역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의 전반적 환경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역만족도

지역의 문화자본의 지역 주민들의 개인 만족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지역문화자본으로서 지역문화재, 지역문화자산, 여가생활, 문화프로그램, 지역축제, 고유전통은 지역주민의 개인생활만족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문화자본과 개인만족도의 모형요약과 분산분석

모형 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488a	.238	.236	1.548
a. 예측값: (상수), 고유전통, 문화프로그램, 여가생활, 지역축제, 문화공간, 문화재				

분산분석b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모형	2025.437	6	337.573	140.801	.000a
	잔차	6485.305	2705	2.398		
	합계	8510.742	2711			
a. 예측값: (상수), 고유전통, 문화프로그램, 여가생활, 지역축제, 문화공간, 문화재						
b. 종속변수: 개인만족도						

위의 〈표 2〉와 같이 지역문화자본과 개인만족도는 회귀분석 모형은 99%의 수준의 의미 있는 것으로, 문화자본을 구성하는 6가지 요인들과 개인의 지역만족도는 다음의 〈표3〉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표 3〉 문화자본의 구성요소와 개인만족도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3.508	.105		33.452	.000
	여가생활	.212	.017	.252	12.205	.000**
	문화프로그램	.139	.018	.162	7.755	.000**
	문화공간	.003	.023	.004	.135	.893
	문화재	.027	.024	.033	1.112	.266
	지역축제	.060	.021	.077	2.826	.005**
	고유전통	.082	.024	.096	3.435	.001**
a. 종속변수: 지역만족도						

주: * $p < 0.05$, ** $p < 0.01$

문화자본의 구성 요소 가운데 여가생활과 문화프로그램이 개인의 지역만족도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의 문화공간이나 문화재는 개인만족도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생활이나 문화프로그램은 지역에 거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필요나 흥미에 의해 직접 향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역문화재나 문화자산은 개인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지 못한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변인 및 지역크기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지역에 대한 만족도는 연령과 지역크기에 의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표 4)참조). 지역주민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지역주민들간에 상호교류 및 상호작용은 지역 혹은 동네의 사람들간에 흐르는 전통이나 내려오는 정서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오래된 동네이고 주민들의 연령이 노령인 경우 지역전통은 더 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그 지역에 어떤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가는 개인들의 개별 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만족도에는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4〉 개인변인에 따른 지역만족도

		제공합	df	평균 제공	거짓	유의확률
성별	집단-간	15.672	65	.241	.963	.561
	집단-내	665.029	2657	.250		
	합계	680.701	2722			
나이	집단-간	24809.798	65	381.689	1.407	.018*
	집단-내	720637.738	2657	271.222		
	합계	745447.536	2722			
지역크기	집단-간	68.776	65	1.058	1.320	.045*
	집단-내	2129.077	2657	.801		
	합계	2197.853	2722			
월소득	집단-간	3561239.896	65	54788.306	1.273	.071
	집단-내	1.138E8	2645	43025.601		
	합계	1.174E8	2710			
경제활동여부	집단-간	12.647	65	.195	1.113	.252
	집단-내	464.548	2657	.175		
	합계	477.195	2722			
학력	집단-간	114.180	65	1.757	1.178	.158
	집단-내	3963.469	2657	1.492		
	합계	4077.650	2722			
혼인상태	집단-간	21.586	65	.332	1.169	.169
	집단-내	754.867	2657	.284		
	합계	776.452	2722			

주: * $p < 0.05$, ** $p < 0.01$

2) 지역생활환경 평가

지역의 문화자본이 개인이 평가하는 지역생활환경에도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음 〈표 5〉에 제시되고 있다. 지역사회 거주하는 주민들의 개인만족도 뿐 만 아니라, 당해 지역사회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넘어 객관적인 지역생활환경에 대한 평가를 분석한 결과 문화자본의 지역사회환경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드러났다.

〈표 5〉 문화자본과 지역환경평가의 모형요약과 분산분석

모형 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445a	.198	.196	1.642
a. 예측값: (상수), 고유전통, 문화프로그램, 여가생활, 지역축제, 문화공간, 문화재				

분산분석b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모형	1799.620	6	299.937	111.233	.000a
	잔차	7288.550	2703	2.696		
	합계	9088.170	2709			
a. 예측값: (상수), 고유전통, 문화프로그램, 여가생활, 지역축제, 문화공간, 문화재						
b. 종속변수: 지역생활환경						

지역사회 문화자본의 구성요소 가운데 여가생활과 문화프로그램은 지역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지역축제와 고유전통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음의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지역에 대한 개인만족도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지역사회에 대한 주관적 차원과 객관적 차원의 평가는 비슷한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

〈표 6〉 문화자본의 구성요소와 지역생활환경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3.738	.111		33.612	.000
	여가생활	.170	.018	.196	9.222	.000**
	문화프로그램	.165	.019	.186	8.679	.000**
	문화공간	.009	.024	.011	.377	.706
	문화재	-.002	.026	-.002	-.068	.945
	지역축제	.078	.023	.096	3.433	.001**
	고유전통	.076	.025	.085	2.980	.003**
a. 종속변수: 지역생활환경						

주: * $p < 0.05$, ** $p < 0.01$

2. 문화자본과 지속거주의향

지역사회의 문화자본에 대한 분석은 지역주민들이 당해 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인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문화자본이 해당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게 할 수 있다는 점으로 지방정부는 문화자본의 서비스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들의 인구감소에 따른 유입 인구를 늘리려는 각종 정책들에 집중하는 것은 역으로 지역사회에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당해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유인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의 <표 7>은 문화자본이 지역주민의 지속거주의향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7> 문화자본과 지속거주의향의 모형요약과 분산분석

모형 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307a	.095	.093	2.186
a. 예측값: (상수), 고유전통, 문화프로그램, 여가생활, 지역축제, 문화공간, 문화재				

분산분석b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모형	1350.029	6	225.005	47.080	.000a
	잔차	12927.856	2705	4.779		
	합계	14277.885	2711			
a. 예측값: (상수), 고유전통, 문화프로그램, 여가생활, 지역축제, 문화공간, 문화재						
b. 종속변수: 지속거주의향1						

문화자본의 구성요소는 당해 지역에 지속거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음의 <표 8>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여가생활과 문화프로그램 및 지역의 고유전통은 개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의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축제는 개인의 지역만족도와 지역환경 전반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영향을 미쳤으나, 지역의 지속거주의향에는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서인석의 (2015)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지방정부의 지역 축제 향후 방향설정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지역축제는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긍정적인 역할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연구에서 지역축제가 지역주민들에게는 무관

심하게 되고 지역 환경오염과 소음의 원인이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표 8〉 문화자본의 구성요소와 지속거주의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4.735	.148		31.987	.000
	여가생활	.113	.024	.104	4.629	.000**
	문화프로그램	.153	.025	.137	6.028	.000**
	문화공간	-.004	.032	-.003	-.111	.912
	문화재	-.017	.034	-.016	-.500	.617
	지역축제	.032	.030	.032	1.076	.282
	고유전통	.152	.034	.137	4.501	.000**
a. 종속변수: 지속거주의향1						

주: * p < 0.05, ** p < 0.01

3. 문화자본과 지역소속감 및 지역정체성

지역사회의 문화자본이 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지역정체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 지역소속감

문화자본은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 소속감에 대한 모형요약은 다음의 〈표6〉과 같다.

〈표 9〉 문화자본과 지역정체성의 모형요약과 분산분석

모형 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387a	.150	.148	1.775
a. 예측값: (상수), 고유전통, 문화프로그램, 여가생활, 지역축제, 문화공간, 문화재				

분산분석b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모형	1501.755	6	250.293	79.449	.000a
	잔차	8505.933	2700	3.150		
	합계	10007.688	2706			
a. 예측값: (상수), 고유전통, 문화프로그램, 여가생활, 지역축제, 문화공간, 문화재						
b. 종속변수: 소속감1						

문화자본의 구성요소 가운데 여가생활, 문화프로그램과 지역고유전통은 개인의 지역사회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역축제와 문화공간 및 문화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이런 결과는 문화자본이 당해 지역 지속거주의향과 같은 결과로 지역에 대한 소속감은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거주와 무관치 않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표 10〉 문화자본의 구성요소와 지역사회 소속감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3.544	.120		29.457	.000
	여가생활	.134	.020	.147	6.731	.000**
	문화프로그램	.082	.021	.088	3.976	.000**
	문화공간	.035	.026	.039	1.337	.181
	문화재	-.045	.028	-.052	-1.638	.102
	지역축제	.038	.024	.045	1.571	.116
	고유전통	.203	.028	.217	7.370	.000**
a. 종속변수: 소속감1						

주: * $p < 0.05$, ** $p < 0.01$

지역사회 소속감이 구체적으로 개인의 사회경제적 변인 및 지역크기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과 지역크기가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표 11〉 참조). 연령변인은 고연령층의 경우 퇴직이나 자녀들의 독립으로 이사 및 전출입에 대한 요구가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표 11〉 개인변인에 따른 지역소속감

		제공합	df	평균 제공	거짓	유의확률
성별	집단-간	11.175	52	.215	.857	.757
	집단-내	665.795	2655	.251		
	합계	676.970	2707			
나이	집단-간	78093.782	52	1501.804	6.009	.000**
	집단-내	663604.612	2655	249.945		
	합계	741698.394	2707			
지역크기	집단-간	83.985	52	1.615	2.041	.000**
	집단-내	2100.852	2655	.791		
	합계	2184.837	2707			
월소득	집단-간	5253213.370	52	101023.334	2.402	.000**
	집단-내	1.112E8	2643	42059.294		
	합계	1.164E8	2695			
경제활동여부	집단-간	7.464	52	.144	.815	.826
	집단-내	467.866	2655	.176		
	합계	475.331	2707			
학력	집단-간	246.854	52	4.747	3.319	.000**
	집단-내	3797.351	2655	1.430		
	합계	4044.205	2707			
혼인상태	집단-간	32.416	52	.623	2.234	.000**
	집단-내	741.030	2655	.279		
	합계	773.446	2707			

주: * $p < 0.05$, ** $p < 0.01$

개인변인 및 지역크기에 따른 지역소속감은 지역만족도나 지역정체성과 달리 연령 뿐 만 아니라, 학력과 혼인형태 및 소득의 변인에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혼인형태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경우, 자녀들의 학교등교 및 학군이라는 한국적 여건이 반영된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자녀들이 취학연령이상인 경우 상급학교의 진학과 동급생 자녀교우관계라는 측면들이 지역에 거주여부와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결과는 이미 논의된 지역에 대한 만족도에서 학력과 소득 및 혼인형태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도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는 지역소속감이 개인의 사회경제적 변인의 영향을 각 지역의 고유한 상황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지역정체성

문화자본은 지역정체성은 다음의 <표 12>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결과는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와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12> 문화자본과 지역정체성의 모형요약과 분산분석

모형 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369a	.136	.135	1.34851
a. 예측값: (상수), 고유전통, 문화프로그램, 여가생활, 지역축제, 문화공간, 문화재				

분산분석b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1	회귀 모형	2025.437	6	337.573	140.801	.000a
	잔차	6485.305	2705	2.398		
	합계	8510.742	2711			
a. 예측값: (상수), 고유전통, 문화프로그램, 여가생활, 지역축제, 문화공간, 문화재						
b. 종속변수: 개인만족도						

문화자본의 구성요소 가운데 여가생활과 문화프로그램은 지역정체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13> 참조). 문화공간과 문화재는 지역정체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나 지속거주의향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13> 문화자본의 구성요소와 지역정체성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4.608	.092		50.337	.000
	여가생활	.094	.015	.137	6.206	.000**
	문화프로그램	.116	.016	.164	7.374	.000**
	문화공간	-.028	.020	-.041	-1.396	.163
	문화재	-.018	.021	-.028	-.875	.382
	지역축제	.041	.019	.064	2.178	.029*
	고유전통	.121	.021	.172	5.746	.000**
a. 종속변수: 지역정체성1						

주: * $p < 0.05$, ** $p < 0.01$

문화자본과 지역정체성에 대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변인 및 지역크기에 따른 구체적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과 지역크기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표 14〉 참조). 지역정체성은 지역소속감에 차이를 보여준 학력이나 소득 및 혼인형태에 따른 의미있는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 점은 지역에 대한 정체성은 지역소속감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표 14〉 개인변인에 따른 지역정체성

		제곱합	df	평균 제곱	거짓	유의확률
성별	집단-간	12.934	54	.240	.957	.564
	집단-내	665.029	2657	.250		
	합계	677.963	2711			
나이	집단-간	22444.013	54	415.630	1.532	.008**
	집단-내	720637.738	2657	271.222		
	합계	743081.751	2711			
지역크기	집단-간	59.840	54	1.108	1.383	.034*
	집단-내	2129.077	2657	.801		
	합계	2188.917	2711			
월소득	집단-간	2071283.222	54	38357.097	.891	.697
	집단-내	1.138E8	2645	43025.601		
	합계	1.159E8	2699			
경제활동여부	집단-간	10.989	54	.203	1.164	.194
	집단-내	464.548	2657	.175		
	합계	475.537	2711			
학력	집단-간	107.344	54	1.988	1.333	.054
	집단-내	3963.469	2657	1.492		
	합계	4070.814	2711			
혼인상태	집단-간	18.654	54	.345	1.216	.136
	집단-내	754.867	2657	.284		
	합계	773.521	2711			

주: * $p < 0.05$, ** $p < 0.01$

V. 결론 및 제언

지방정부의 문화자본이 주민의 지역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해당 지역에 지속거주의향, 지역소속감과 지역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의 문화자본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지역사회 문화자본에 대한 참여가 높을수록 지역생활에 대한 개인만족도가 높았으며, 지역의 문화자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지역거주민들은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정부의 수준이나 지역의 크기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냈으며 농촌지역의 중소도시형 지역사회 거주자들이 대도시 지역주민보다 지역의 문화자본에 대한 지역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의 사회경제적 변인과 지역사회의 크기가 지역만족도와 지역정체성 및 지역소속감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는 문화자본이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지역사회는 다양한 행사들이 있고, 그것을 지역축제 혹은 지방문화제의 형식에 그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여가활동과 문화프로그램 등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이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역사회의 자본으로 간주하고 그 영향을 연구하고자 문화자본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문화자본이 한 지역에 있는 정서적 정신적 문화유산의 것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의 가치와 고유한 전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로 연구한 것이다. 그리고 연구결과는 지역사회에서 문화자본으로 간주되는 요소들을 발견하여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문화자본을 현재진행형의 서비스전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자본의 요소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는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문화자본이 지역사회에 갖는 기능과 역할을 전제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자본을 지역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를 구성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지역주민들의 지역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들이 처한 재정적 어려움과 제한된 예산에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지방정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커뮤니티웰빙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문화자본은 특정 지역의 주민이 지속적인 주거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주민들이 특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신들의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가가 자신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 지역주민의 지역정체성은 지속거주성과 관련있다는 점에서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인구유입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인센

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는 점등을 고려하여 인구유입의 관심을 인구유출을 줄이는, 즉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것에 관심을 둔 정책을 고려해볼 만 한 것이다.

둘째, 지역주민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가운데 연령과 지역크기가 지역사회의 문화자본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는 개인의 물리적, 경제적 상태뿐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측면이 반영된 것이라는 문화의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지역주민들은 지역사회가 개인의 여가생활의 여유를 줄 수 있는가와 개인의 실제 여가참여등도 관련 있는 것으로 지방정부는 인프라 SOC 자본 등 물질적인 개발 중심의 정책을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지방정부 서비스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자본은 지역주민의 지역생활 만족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들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여러 자본들 가운데 문화자본의 요소로서 여가생활이나 문화프로그램은 모든 부분에 걸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결과는 지방정부의 경제자본이나 인적자본 보다도 문화적 자본이 주민만족도에 높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결과는 지방정부가 지역주민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혹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가운데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고 적은 자본의 투입으로 더 높은 효과를 가져올지 자본의 투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넷째, 지역주민들의 지역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문화자본이 높은 곳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문화는 주민들로 하여금 그 지역이 어떤 곳이라는 간접적인 상징이면서 그 문화를 보고 경험하는 동안에 자신의 일체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문화자본을 파악하고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역사와 유물, 관광지 등 지역사회의 문화활동을 종합하여 주민들에게 향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서비스들이 지역주민들의 실질 행복이나 삶의 만족도를 얼마나 향상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해당지역에 대한 자체적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지방정부는 실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과 사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문화는 문화인류학과 사회학자들의 관심연구영역으로부터 행정학 혹은 정책학 분야로 확장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행정학, 특히 지방행정은 문화에 대한 관심은 지방자치가 독자적 영역으로 구축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였다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그 어떤 것으로 지역사회의 전통과 역사 및 지역주민들의 공유하고 있는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물론 이런 관심은 지역사회를 알리기 위해 지방정부에 의한 다양한 지

역축제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지역축제는 지역주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공동체 활동으로 행해지는 곳과 지방정부에 의해 지역사회구성원들의 공동체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최근 지역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혹은 지역사회로의 방문객 증가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에 의해 공유되고 인식되고 있는 그들 지역사회의 문화는 어떤 것이며 지역의 문화자본의 생성과 이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지역정체성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기영화 외. (2013). 성미산 지역공동체 커뮤니티웰빙의 패러다임 모형분석: Strauss와 Corbin의 근거이론. 「한국행정학보」, 47(1)(2013 봄): 295-320
- 김정이. (2011).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6-54.
- 이명우 외. (2016). 여가활동이 국민행복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30(2): 266-299
- 이용관·김혜인. (2014). 지역문화역량에 따른 축제의 집객효과분석. 「문화정책논총」, 28(2): 154-173
- 서인석 외. (2015). 지방정부 가치척도로서 주관적 삶의 질 증진과 커뮤니티웰빙 구성요소의 관계: Kee 커뮤니티웰빙 모형의 6자본요인을 적용하여. 「한국행정연구」, 22(4): 29-64
- 서우석. (2015). 문화여가활동이 경제적 빈곤층의 행복과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29(1): 266-297.
- 정보람·전인수. (2017). 소득수준과 문화적 여건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책논총」, 31(1): 30-51.
- 통계청홈페이지주거형태자료KOSIS.
20170713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9_A155&conn_path=I2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Richardson, J.,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CT: Greenwood: 241-258.
- Crook, C. (1997). *Cultural Practices and Socioeconomic Attainment: The Australian Experience*. 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 DiMaggio, P. (1982). Cultural Capital and School Succ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2): 189-201.
- Emmison, M., & Frow, J., (1998). Information Technology as Cultural Capital in *Australian Universities Review*, Issue 1: 41-45
- Gatto, J. (2003). Against School, Harper's Magazine forum School on a Hill, Sep.[https://harpers.org/archive/2003/09/against-school\(rjatorldf: 2017.09.10.\)](https://harpers.org/archive/2003/09/against-school(rjatorldf: 2017.09.10.))
- Harker, 1990:13 Harker, R., (1990). Education and Cultural Capital in Harker, R., Mahar, C., & Wilkes, C., (eds), *An Introduction to the Work of Pierre Bourdieu: the practice of theory*, Macmillan Press, London

- Harper-Scott J. & Samson, J. (2009). An Introduction to Music studi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52-55.
- Kee et al. (2014). Sing, Dance, and Be Merry: The Key to Successful Urban Development, *Asian Social Science*, 10(9): 245-261
- Kee. (2016). Multi-dimensional Model of Community Well-Being from a Public Service Delivery Perspective. In R. Phillips, C. Wong (eds.), *Handbook of Community Well-Being Research*, International Handbooks of Quality-of-Life, Springer. 69-84
- Kee & Nam. (2016). Does Sense of Community Matter in Community Wellbeing, 39-56. In Kee, Y., Kim, Y., & Phillips, R. (2016). (Eds.), *Learning and community approach*, Springer Briefs Series in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Research.
- Kim & Lee. (2013).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Community Wellbeing Index in Korean Metropolitan C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Springer, 119(2): 533-558
- King, A. (2000). Thinking with Bourdieu Against Bourdieu: A 'Practical' Critique of the Habitus. *Sociological Theory*. 18(3): 417-433.
- Kingston, P., (2001). The Unfulfilled Promise of Cultural Capital Theory in Sociology of Education, Extra Issue, 88-99
- KOSIS20170713갱신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9_A155&conn_path=I2(검색일: 2017.07.13.)
- Martin, B., & Szelenyi, I., (1987). Beyond Cultural Capital: toward a theory of symbolic domination in Robbins, D., (ed) (2000) *Pierre Bourdieu Volume I*, Sage Publications, London, pp. 278-302.
- Peterson & Simkus. (1992). How Musical Tastes Mark Occupational Status Groups. pp. 152-185. In Lamont, M. & Fournier, M. *Cultivating Differenc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ullivan, A. (2001). Cultural Capital and Educational Attainment. *Sociology*. 35(4): 893-912.
-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5th Ed., (2009), 127.
- Sullivan, A. (2002). Bourdieu and Education: How Useful is Bourdieu's Theory for Researchers?. *Netherlands Journal of Social Sciences*. 38(2): 144-166.

기영화: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Ph.D(논문: A Study of Adult Education Needs of Korean Americans: Barriers to Participation, 1993)를 취득하고 송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커뮤니티웰빙, 공무원HRD, 지방정부교육복지이다. “지방행정서비스와 커뮤니티웰빙구성요소간관계”(한국행정연구 2014), “커뮤니티웰빙이론개념구성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학회보 2014”, “An Analysis of the Relative Importance of Components in Measuring Community Wellbeing”(SocialIndicators Research, 2014), “Sing, Dance, and Be Merry: The Key to Successful Urban Development?”(Asian Social Science, 2014), “Promoting Community Wellbeing: The Case for Lifelong Learning for Older Adults”(Adult Education Quarterly, 2014) 등이 있다(key@ssu.ac.kr).